

암 환자의 사회 복귀, 사회적협동조합 만들어 돕고 있어요!

'다시시작' 안연원 대표

경의중앙선 백마역 1층에 위치한 리본(Re: Born)은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지원센터이다. 이곳에 암 극복 사회적경제기업 1호 '다시시작'이 있다. 다시시작은 국내 최초로 유방암 환자들이 설립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탈모 예방 비누 등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. 그리고 그 수익은 다시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돌아간다.

글 공주영 사진 조병우



Q — 다시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협동조합인가?

국립암센터에서는 유방암 환우 자조모임인 '민들레회'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회원이었어요. 암 환자들은 몸도 힘들지만, 마음 관리도 필요합니다.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. 그래서 민들레회에서 정기모임을 통해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자기 계발에 필요한 강좌를 많이 열어줬어요. 저 역시 민들레회 임원 활동을 하던 중에 사회적협동조합 아카데미 강좌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투병으로 경력

단절이 된 암 환우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죠. 그리고 2018년 8월 국립암센터와 고양시에서 '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암 환자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' 협약을 맺고 암 환자와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지원해주었어요. 2019년 10월 31일 리본 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민들레회 임원 5명이 힘을 합쳐 다시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막 돌이 지났네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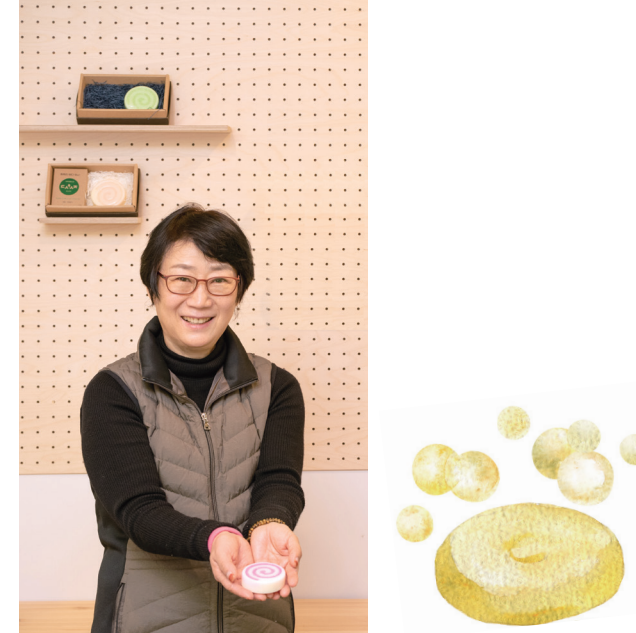
Q — 암 환자의 사회 복귀는 어떻게 돕고 있나요?

긴 투병 활동을 하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어 가정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각자가 지닌 재능이 충분한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. 저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요. 저희 같은 암 환우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.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전신이 가려워요. 또 머리가 빠지고 두피에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.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천연재료를 사용한 세안비누와 샴푸바를 만들었어요. 피부와 모발이 거칠어지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안비누와 탈모 예방 비누, 청소년용 비누 등 여덟 종의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 행사도 하고 있어요.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비누를 만들고 포장하는 등의 일을 돕는 암 환우들의 인건비를 제공해요. 올해는 상반기 열 명, 하반기에 열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. 저희가 만든 제품은 온라인사이트(www.resocoop.org)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.

Q —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암 환우들이 참여하는 경기민요동아리인 희망소리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. 희망소리꾼에서는 암 환우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많이 진행했었어요.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동아리 모임을 하기 힘들어 활동을 하지 못했네요. 남은 하반기에는 모임을 조금씩 가지면서 내년 활동에 대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. 또 국립암센터발전기금 기부행사나 바자회 등에 참여해서 저소득 암 환우를 위해 치료비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.

암환자의 사회복귀지원센터 '리본'



Q — 이곳 리본 센터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.

암에 걸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사회로 다시 돌아가 일을 하기 힘들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예요. 리본은 '다시 태어나다(Re: Born)'는 의미 그대로 힘든 암 치료 과정을 겪은 환자들이 각자 재능을 살려 창업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귀지원센터예요. 암 환자나 암을 치료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암 환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또 저희처럼 직접 만든 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요. 지나가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전시 제품을 관람할 수 있어요. 곧 센터에 소아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2호도 들어올 예정입니다.

Q 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?

올해는 코로나로 판매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부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. 제2의 '다시시작'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거예요. 또 정서적으로 취약한 암 환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려고 합니다.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직접 얼굴을 보며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는 방향도 생각 중이고요. 또 고양시 소재의 기관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싶어요.